



별을 세는 밤

잠이 오지 않는 밤, 작은 꿈은 숲으로 떠납니다.



눈이 말뚱말뚱해요

포근한 이불 속에서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.



밤 숲으로 걸어요

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따라 조심스레 걸어요.



하늘에 가득한 별들

별들이 보석처럼 밤하늘에 쏟아지고 있었어요.



별을 하나씩 세어요

별 하나에 하품 한 번, 슬며시 눈꺼풀이 무거워져요.



이제 스르륵 잠들어요

따스한 별빛을 이불 삼아 행복한 꿈속으로 가요.